밤에 떠나는 역사 체험, 광주 국가유산 야행 개최

25~26일 '돌의(義) 시간' 주제 33개 프로그램 운영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오는 25~26일 이틀간 5·18민주광장, 서석초등학교 등 지역 국가유산 일원에서 '광주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 국가유산 야행은 동구의 국가유산과 역사를 활용한 야간문화 향유 축제다. 광주의 백제부터 5·18까지 이어지는 석실, 석등, 석탑, 성곽의 '돌'에 담긴 이야기와 '의(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돌의(義) 시간'을 주제로 한 33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광주의 돌과 의(義)의 이야기를 시대별로 전달하는 개막공연 '돌의(義) 시간'(25일 오후 7시30분 5·18민주광장)을 시작으로 펼쳐지는 올해 행사는 장소마다 시대별 콘텐츠를 달리 운영해 야행 속 도보 관광의 재미를 더했다.

광주의 백제시대부터 1980년까지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돌의 광장존'(5·18민주광장)에서는 동구의 국가유산을 '돌'과 '의(義)'로 선보이는 체험형 전시 '주제관'이 펼쳐진다. 또한 광주 5개구의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광주 국가유산 한마당',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들으며 돌탑을 쌓는 VR 체험인 '돌탑 멜로디' 등도 만날 수 있다.

'빛의 읍성존'(빛의 읍성)에서는 광주읍성이 존재했던 광주의 조선시대를 경험할 수 있다. 서당의 훈장으로부터 광주읍성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연극 '광주 읍성 유람기'와 전통 식·음료를 맛볼 수 있는 '작은 장' 등이 펼쳐진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학생 독립 존'(서석초교)에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관객 참여형 연극인 '학생 독립 기억학교', 광주의 역사 속 여성 인물 3인방과 차 한잔을 나누며 즐기는 '카페 동인' 등이 운영된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플라자 브릿지 일원 '광주 큰장'에서는 바느질과 시계, 자전거 등 수리·수선 체험 등을 통해 다시 쓰는 복원 문화에 대해 경험할 수 있으며, 지난해 야행에서 사용한 현수막을 새 활용한 가방, 지갑 등 생활소품도 전시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지역 상점에서 쓸 수 있는 야행 화폐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야행 화폐는 총 3가지로, 장소별

(돌의 광장 존·빛의 읍성 존·학생 독립 존) 야행 화폐를 모으는 재미를 더했다. 각 장소별 지정된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1개의 화폐(1천 원 상당)를 제공하며, 1인당 총 3개까지 획득할 수 있다. 야행 화폐는 야행 협력 상점인 '돌 상점'과 광주 큰장·작은 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힌츠페터 기록학교', '무등무명(無等無名) 지식가이드 투어', '분청사기 마상배 만들기' 등 체험형 콘텐츠와 국가유산 테마관광을 즐길 수 있는 '야행 숙박패키지' 등도 첫 선을 보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 국가유산 야행 누리집(www.gjnight.com)에서 확인하거나 광주 국가유산 야행 사무국(☎062-608-24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국가유산과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면서 "광주 방문의 해에 펼쳐지는 '광주 국가유산 야행' 속에서 머물며 빛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영광문화예술의전당 〈2025년 낭만콘서트 5080〉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오는 5월 9일(금) 오후 3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어버이날 특별공연 '2025년 낭만콘서트 5080'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영광군민의 향수를 자극하고 따뜻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뜻깊은 자리로, 중·장년층에게는 낭만과 감동을, 온 가족에게는 즐거움과 공감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유의 입담과 재치 있는 진행으로 사랑받고 있는 방송인 조영구의 사회로 진행되며, 70~80년대를 풍미한 김상희, 권성희, 김국환, 문연주, 전미경 등 국내 대표 가수들이 출연해 주옥같은 명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웃음과 유쾌한 추억을 책임질 코미디언 방일수, 원일의 출연으로 공연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낭만콘서트 5080'은 음악과 함께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소통의 장을 통해 가족이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연은 (사)한국연예인한마음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

진흥원, 영광군이 후원하며, 관람료는 전석 무료이다(선착순, 1인 4매 한정). 입장권은 4월 28일부터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안내데스크에서 현장 예매가 가능하다.

공연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영광군청 홈페이지(www.yeonggwang.go.kr) 내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코너와 네이버밴드(http://band.us/#!/band/5015660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강진군, 5월부터 구석구석 문화배달 본격 시작

문화 소외지역에 양질의 문화 향유와 혜택 기회 부여

이야기가 있는 자전거여행, 문화접목 캠핑, 사진대회 등

강진군이 지역 문화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서비스인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진흥원과 전남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사업으로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강진군의 풍부한 전통 문화자원과 새롭게 조성된 문화시설을 적극 활용,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도시에 비해 문화적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민과 생활 인구, 정주 인구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코자 문화와 레저를 접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두 바퀴로 누리는 강진 구석구석'은 일상 속에서 문화를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생태, 역사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자전거로 생태공원을 여행하는 체험형 콘텐츠가 특징이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버스킹, 음악 연주회 등을 접목한 캠핑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11월에는 개관을 앞둔 백금포 문화곳간에서 미디어아트 감상 사진대회 등이 준비돼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일상에 지친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시간을 향유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강진의 풍부한 문화자산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두 바퀴로 누리는 강진 구석구석'은 5월 2일 첫 시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과 관광객은 강진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문화관광재단(061-434-7994)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제23회 구례 전국가야금경연대회 및 축하공연 개최

구례군은 (사)가야금병창보존회(이사장 강정숙) 주관으로 제23회 구례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가 오는 5월 3일(토)부터 4일(일)까지 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초·중·고등부, 신인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참가자들이 실력을 겨루며, 가야금 산조, 병창, 창작 등 총 14개 부문에서 수준 높은 경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지난 4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국에서 311팀 319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특히 일반부 대상에게는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금상 수상자는 국가유산청장상, 대학부 대상 수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된다.

또한, 대회 개최 전날인 5월 2일(금) 오후 5시, 섬진아트홀에서는 대회의 2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축하공연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국악인 이예랑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가야금 산조·병창·창작 공연, 단막창극'뺑파전', 호남여성농악보존회 등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풍성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가야금 산조의 거장 서공철 명인의 고향인 구례는 자연과 예술, 문화가 어우러진 곳이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가치가 더욱 빛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광고문의 TEL 062-525-9775